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5-1학기 1차 정기 세미나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 기후행동
활동시간	2025.04.02	비고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li> <li>- 기후 위기에 대한 정기 세미나</li> </u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p> <p><b>활동내용</b> 2025학년도 1학기 동아리 첫 공식 활동으로서, 대학생기후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신입부원들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하고, 1학기에 진행될 학내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간단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p> <p><b>주요 소감</b>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미 티핑 포인트 1.5도를 넘어선 줄은 몰랐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시각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주제가 대화의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꺼리고 거부감을 갖는 현 사태가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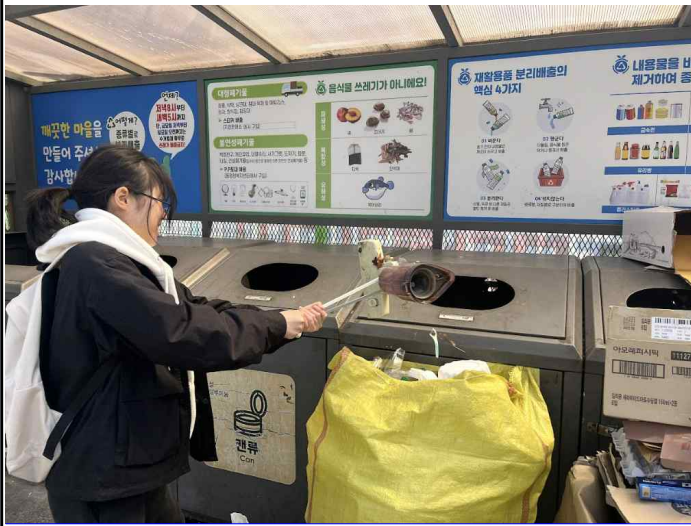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다혜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5-1학기 행궁동 플로깅 활동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 기후행동
활동시간	2025.04.06	비고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li> <li>-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li> </u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수원 행궁동 일대</p> <p><b>활동내용</b>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수원 행궁동 일대에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궁동 주요 거리와 골목길,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며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활동 후 분리수거를 진행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p> <p><b>주요 소감</b> 도심 속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움직이며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응원해준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다혜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5-1학기 2차 정기 세미나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 기후행동
활동시간	2025.04.09	비고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li> <li>- 기후 위기에 대한 정기 세미나</li> </u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p> <p><b>활동내용</b> 학내 프로젝트 주제인 '제로탄소맵'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p> <p><b>학내 프로젝트 주제</b> 제로탄소맵.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인근 지역의 비건 식당, 리필스테이션, 아름다운가게, 제로웨이스트샵 등을 직접 조사하고 인터뷰하여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p> <p><b>세미나 및 주요 소감</b> 세미나에서는 탄소 중립의 개념과 일상 속 탄소 배출 저감 실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례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와 세미나가 연결되면서 배움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지속가능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에 대한 의지가 생겼습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다혜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5-1학기 학내 프로젝트 실시(가게 방문 및 인터뷰)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 기후행동
활동시간	2025.05.07. ~ 2025.05.21	비고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li> <li>- 기후 위기와 관련된 학내 프로젝트</li> </u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제로웨이스트샵-지구인들의놀이터, 비건식당-레트로33, 리필스테이션-가치가게</p> <p><b>활동내용</b> '제로탄소맵' 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가게들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고, 인터뷰를 통해 각 공간의 철학과 운영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탐방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기반으로,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이 없어도 쉽게 환경친화적인 가게를 접할 수 있도록 비건 식당, 리필스테이션, 제로웨이스트샵 등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인들의놀이터 : 생활 속 창작과 순환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상점으로 '실컷 놀면서 지구도 지키고 싶어 그랬어'라는 슬로건 아래 무포장 제품, 핸드메이드 창작물, 재사용품 등을 판매하며 자원순환 수거 허브로 기능합니다.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병뚜껑, 브리타 필터, 우유팩 등 다양한 품목을 수거하고, 리필스테이션을 통해 세제, 유연제 리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li> <li>- 레트로33 : 코로나19를 계기로 육식 문화와 전염병의 연관성을 인식한 대표가 인류와 환경을 위한 비건 전환을 결심하면서 만들어진 비건 레스토랑입니다. 단순히 채식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메뉴명이나 간판에 비건이라는 단어를 굳이 내세우지 않고 맛있는 음식 자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는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할인해주는 용기내 캠페인을 운영하여 일회용품을 최소화하는 등의 환경적 실천도 도모하고 있습니다.</li> <li>- 가치가게 :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제, 샴푸, 주방세제,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개인 용기를 지참해 필요한 만큼 리필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친환경 가게입니다. "용기를 내서 용기를 채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쉽게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li> </ul> <p><b>주요 소감</b> - 지구인들의놀이터 : 제로웨이스트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습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창작이 만나는 새로운 문화운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경 실천은 완벽함보다 공유와 참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입점 작가들이 종이 포장으로 전환하거나 소비자들이 리필과 수거활동에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p>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 레트로33 : 비건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생명 존중과 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건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아도, 하루 한 끼라도 비건식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천의 문턱을 낮추는 접근이 비건 문화 확산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맛있는 비건 음식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선택이 결코 희생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 가치가게 : 물건을 파는 공간이라기보다 가치와 관계를 나누는 플랫폼으로 느껴졌습니다. 인터뷰 중 "편리함을 위해 인간의 수명보다 긴 플라스틱을 1회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 삶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제로웨이스트가 단순한 친환경 소비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지역의 이런 작은 공간들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비건 푸드

환경도 건강도 생각한다면,  
비건이라서 맛있는  
'레트로 33'



스토어

실컷 놀면서  
지구도 지키고 싶었던  
무해한 창작자들의 놀이터



스토어

같이 실천해 나가는  
제로웨이스트 삶의 가치  
공유공간 '가치가게'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다혜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 기후행동
활동시간	2025.06.25. ~ 2025.06.28	비고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li> <li>-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li> <li>-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대 활동</li> </u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강원도 화천군</p> <p><b>활동내용</b> 대학생 기후행동 경희대지부는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와 연대하여 2025년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농활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의 최전선에 농인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식량 주권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확인하며 농민들과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농업 생산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을 몸소 체험하며, 기후 행동의 영역을 농촌 공동체와의 연대로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일손 돕기 : 잡초 제거, 오이 순 제거, 깨 모종 심기 등의 농작업을 수행했습니다.</li> <li>- 농민분과의 교류 : 농민분들과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와 개별 교류를 진행하며 연대의 장을 마련했습니다.</li> <li>- 농활 세미나 : 농활의 역사적 의미와 농민과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를 학습하고, 현재 농민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기후 위기가 농민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li> </ul> <p><b>주요 소감</b> 농활을 통해 '기후 위기가 곧 생존의 문제'임을 현장에서 깨달았고, 농민과의 연대가 왜 필요한지 느꼈습니다. 또, 농활이 왜 일방적으로 농촌을 돕는 봉사가 아니라 서로에게 귀한 깨달음을 얻는 연대인지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치를 배웠고 농민들은 우리의 관심을 통해 농촌의 활기와 연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p> <p>무더운 여름날 잡초 제거, 오이 순 제거, 깨 모종 심기와 같은 고된 노동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마트에서 쉽게 구매하는 농산물이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임을 절감했습니다. 농업 생산 과정을 직접 마주할 기회가 적어 농산물의 가치를 쉽게 여기던 기존의 인식을 반성하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p> <p>또한, 세미나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이 높더라도 농민에게는 가격 책정 권한이 없어 이득이 미미하다는 불합리한 시스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달리 대중들은 언론을 통해 농민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오해하는 현실을 접하며, 잘못된 유통 구조와 대중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p>		

앞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와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다혜



#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기후정의 페스티벌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 기후행동
활동시간	2025.09.06	비고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li> <li>-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li> <li>-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대 활동</li> </u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혜화 마로니에 공원</p> <p><b>활동내용</b> "기후위기를 넘어, 초록의 내일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하여 시민들이 기후부정의 현실을 직면하고 연대를 통해 변화의 길을 찾으며 대안사회를 함께 그려가는 여정의 주인공으로서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p> <p>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를 9가지 핵심 키워드(대학, 노동, 재난, 산업, 생태, 식량, 쓰레기, 에너지, 평화)로 나눠 부스와 무대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각 부스에서는 그린캠퍼스, 산업 재해, 에코페미니즘 등 구체적인 세부 주제를 다루며 시민들이 기후정의의 의미를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체험,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무대에서는 기후위기 메시지를 담은 노래나 공연 등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p> <p>페스티벌이라는 문화 요소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쉽고 재밌게 대중에게 전달하고 기후정의를 향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연대를 확대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주도적인 기후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후정의 사회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b>주요 소감</b> 시민들이 기후부정의 현실을 마주하고, 연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며, 대안사회를 함께 상상하는 여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한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각 부스와 무대 프로그램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기후정의의 의미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스에서 진행된 체험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은 기후정의를 자신의 일상과 연결하여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진행된 공연과 토크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대응의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행사를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의</p>		

주도적인 기후 행동을 보여준 것 같아 의미가 있었으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의 활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과 청년이 함께 기후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다혜



# 동아리 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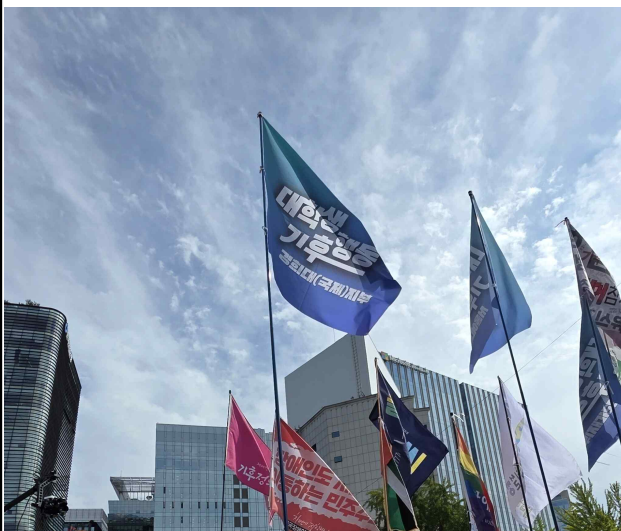
활동명	927 기후정의행진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대학생 기후행동
활동시간	2025.09.27	비고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li> <li>-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li> <li>-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대 활동</li> </ul>		
활동내용 및 소감	<p><b>장소</b>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p> <p><b>활동내용</b>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 문제임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을 심화시키는 체제 위기임을 선언하고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로의 시스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6대 요구안을 발표하여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li> <li>2.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라.</li> <li>3.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재검토하고 신공항, 4대강 사업,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생태계 파괴 사업을 중단하라.</li> <li>4. 기후위기 속에서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li> <li>5. 기후위기 시대,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민 권리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li> <li>6. 전쟁과 학살을 종식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li> </ol> <p>본 집회가 시작되기 전, 광장 주변에 사전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노동, 농민,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참여 단체들이 각자의 요구를 담은 캠페인과 체험 활동을 기획하여 참가자들이 기후정의의 포괄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오픈 마이크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광장에 세워 기후위기가 자신의 삶에 미친 피해를 나누고, 이를 통해 행진의 정치적 요구가 현실의 취약한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진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본 집회를 가진 뒤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준비한 피켓, 깃발을 들고 거리에 기후정의의 구호를 전달했습니다. 행진 중에는 기후재난의 비극을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통해 기후재난이 초래하는 죽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연출하여 기후위기의 긴박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체제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문제임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p>		

**주요 소감**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된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임을 체감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정의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니 무관심한 사회에 우리의 절박한 생각과 위기의식을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즉시 바뀌지는 않더라도, 이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벗어나 행동하는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행진을 통해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우리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행진은 기후 문제를 농업, 전쟁, 평화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와 연결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있었습니다. 단순히 탄소 배출량 감축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농민의 먹거리 기본권 그리고 전쟁과 군비 확장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짚으며 구체적인 정의의 구호를 외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다이인 퍼포먼스를 통해 기후재난의 희생자들을 나타내며 기후위기의 폭력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후위기의 긴박함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광장에서 확인한 연대의 힘으로 기후정의를 위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다혜

